르 뽀 수원캠퍼스 농활현장…경기도 이천군 일대를 다녀와서

청년농활은 아픈농민의 활력소

지난 6월 29일부터 7월7일까지 우리학교 수원캠퍼스 학생 약3백여명은 동연·단대·중앙 세개의 큰 단위로 나누어 경기도 이천군일대 16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농활은 전국기관사협의회·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노동자들의 투쟁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하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경기동부총련과 연합하여 농활을 대폭 축소하거나 미뤄 노학연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농촌봉사활동에 임했다. 〈편집자 註〉

농민의 아픔을 얘기하며

"나한테는 밥지어줄 여편네도 자식놈들도 없구먼… 논 너댓마지기를 갖고 있어도 일손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그런데 농활댄지 뭔지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내 논도 매주고 정말 기분이 좋더구먼 손주놈 갚기도 하고 허허허…"

경기도 이천군 율면 2리 행복마을에 사는 윤준희(81세) 할아버지는 농활대의 활동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지난 28일부터 우리학교 수원캠퍼스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이천군 16개 마을에는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돌았다.

예정보다 하루 늦은 29일부터 농활을 실시한 3백여명의 학생들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구슬땀을 흘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천군 16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농사일과는 거리가 먼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농민의 아픔을 얘기하며 함께 울고 농촌의 산지식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거센 비 속에서도 농촌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청년반·장년반·부녀반·학생반·아동반으로 나뉘는 분반활동을 끝마치는 시간이 밤 10시경, 이 때쯤이면 각 마을회관에서는 학생들의 하루 일과 생활총화 및 단위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농사일에 지치고 분반활동에 진땀을 흘렸던 그들이지만 이 시간 만큼은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그러나 왠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적어도 오늘 일이 힘들었다던지 재미있었다던지 농활에 대한 말 한마디쯤 나올 법한데, 그런 말보다는 일하는 도중에 아주머니들이 차려주시는 음식들에 더 신경을 쏟는 것 같다. 이때쯤이면 농활대장이 한마디 거든다. "오늘 일이 너무 쉬웠나 보죠, 너무 해어해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농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생활 수칙 하나쯤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해진 농활 수칙 제1조는 '시간엄수'였다. 저녁 7시가 다 되어서 일이 끝나면 분반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대장의 이야기와 일에 지치고 박걸 나간 이들의 얼굴 찌푸리지 말자'였다.

> **"짱아리뽑기, 땅콩밭 풀뽑기, 양계장 청소, 과일따기 등의 일에서 '땀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뜻깊은 농촌봉사활동

동연 학생들이 농활을 벌이고 있는 석산3리에서는 서로들 삽 한자루씩 들고 마을 공동우물 보수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의 주산지인 제4리, 신필리 등지에서는 자과대 학생들이 담배순따기, 괴뿔기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공과대 학생들이 들어간 행국2리에서는 독신의 몸으로 혼자 논을 매고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 논을 매주는 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짱아리(무우 종자)뽑기, 땅콩밭 풀뽑기, 양계장 청소, 과수원 과일 따기 등 힘에 벅찬 일을 하면서 '땀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작년까지 이천군 제4리에서 이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기국씨는 "학생들이 장대비를 맞으며 고생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스럽기도 하고 특히 여학생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논바닥에 가득한 피를 뽑는 것을 보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농활대 활동을 격려하기도 했고 "농촌엔 비가 오면 공휴일인데 학생들 때문에 비가 와도 농민들이 쉼없이 일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다.

이미 농활을 여러차례 경험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농촌활동을 처음 해보는 94학번 학생들도 비와 땀에 흠뻑 젖고 새까맣게 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농활이 이렇게 멋있는 것일 줄은 몰랐다"며 농사꾼이라도 된 듯한 모습들이었다.

또한 농활대 학생들은 분반활동을 통해 농민들과 우루과이라운드 및 농촌의 실태를 얘기하며 막걸리 한잔에 목을 축이기도 했다.

> **"나한테는 밥지어줄 여편네도 자식놈도 없구먼… 논 너댓마지기를 갖고 있어도 일손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학생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쌀 위주의 농사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작물을 선정하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굳게 단결해 농촌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분임토의 시간에 입을 모았다.

농활에서 잔뼈가 굵은 고학번들은 농활에 처음 참가한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을 격려하며 "우리 청년 농활대원들이 앞장서서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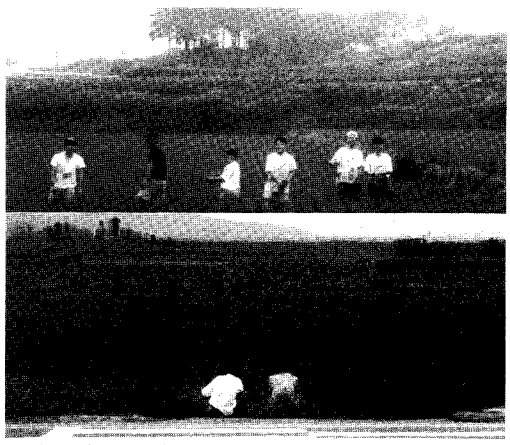
농활의 참의미

농촌과 도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웃인 것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10년 뒤 농촌의 현실을 그려보는 것은 비참한 노릇이겠지만 진정한 자구의 노력과 협력으로 농민의 아픔을 얘기하며 땀의 의미를 찾아가는 농활대의 모습 속에서 그리 암담하지만은 않은 농촌의 현실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통일농업의 기치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농활은 전기협·전지협 노동자들의 투쟁과 맞물려 농민들의 우려의 소리를 한층 높게 한 활동이었으며 전년에 비해 농활대원의 수가 줄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커다란 힘을 안겨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전년에 이은 후속사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활대원들의 꾸준한 활동이 계속되고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농촌은 결코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집부〉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농촌은 어둡지 않다.

강단시론

정 헌 주
〈점경대 교수·무역학〉

경제도 세계화로

오늘날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앨빈 토플러가 말한 격동과 불연속성의 시대 내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무역경쟁을 통한 경제전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가나 국경의 개념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공동체(EC 또는EU),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은 개별국가간의 관세장벽이나 무역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완전한 글로벌화(globalization)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으며, 7년간의 협상 끝에 1993년 12월에 인준된 UR협정이 199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경제의 글로벌화는 계속 가속화 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상품은 물론 모든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념으로서, 필연적으로 더욱 치열한 기업간의 국내외 경쟁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경이나 관세의 보호하에서 저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들은 더이상 생존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비국은 UR에 이어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제시하여 환경문제를 경제무기화하고 있다. 이제는 공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파도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품은 세계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품질관리 시스템의 개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후복구를 위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데밍(Deming)이 소개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기법을 채택함으로써 품질관리에 성공했다. 그러나, 품질관리는 이제 단순히 제품 생산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상품자체의 결함관리 차원을 넘어 고객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부문에서 행해지는 총체적 경영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시장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결함율의 높고 낮음으로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므로 이제 품질관리는 종래와 같이 QC(Quality Control)나 TQC(Total Quality Control)에서 핵심 내용으로 다루는 상품자체의 균일성 여부나 단순한 결함관리 수준에 따라 그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시대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기업의 총체적 품질관리(TQM)가 되어야 한다. 즉 품질의 개념 규정도 이제는 제품생산 라인의 하드웨어에서 찾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까다로워진 고객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소프트적 요소나 인적요소(Human Factors)로 결정되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양적 팽창 위주 전략은 조직의 계층구조와 관료체제를 과도하게 신장시킴으로써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모든 의사결정 메카니즘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태로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있어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직관리 시스템으로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술, 정보, 인적자원 및 모든 생산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조직관리방법 개선

효과적인 글로벌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최고경영층이 조직관리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전통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계층구조를 슬림(slim)화, 플랫(flat)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세계 어느 곳의 고객이 원하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조직을 경량화 시키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은 조직관리 자체의 비능률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계층구조에 의한 단순하고 수직적 관리를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조직 자체가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Intelligence)을 갖추어 나가는 지속적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을 추구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조직(Fluid Organization)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구성원인 종업원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며 인적자원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인간존중경영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사는 유연하고 신축성있는 조직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업에 수용하고 기업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기업윤리에 충실한 경영윤실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존속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경험에 의한 경영이라는 낡고 진부한 경영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출발하는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고객지상주의 경영철학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끊임없는 경영혁신, 기업의 내·외부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직관리방법의 개선 및 인간존중 기업문화형성을 위한 신경영패러다임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신경영 패러다임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주)금강
세계적 명성의 패인트, 수지, 실란트—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 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할 무한한 코트—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